

光日春秋

정 종 섭



“예술은 사기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이 세상을 하직하며 남기고 간 말이다. 예술이라는 것이 기존의 관념과 현실의 전복을 꾀하는 것이니 만치 기성의 관념에서 보면 사기임에 틀림없다. 눈속임뿐만 아니라 생각의 속임도 있다. 예술품도 이런 사기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원래 정해진 가격이 없다. 그러기에 지난해 수억원대로 문자마 미술품 투기를 하다가 작품값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어도 누구 탓할 일이 못된다.

백남준의 말 중에는 더 핵심을 찌른 말이 있다. “일을 하면 욕을 얻어 먹고 일을 하지 않으면 욕을 얻어 먹지 않는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한다” 누구 해질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에게 욕을 한 사람이 여간 많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리라. 기존의 성과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 떠날 때까지 늘 새로운 실험을 한 백남준까지 이런 말을 할 지경이니,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은 욕 얻어 먹는 것을 겁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되어 간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보면, 정부가 바뀌고 일할 사람들이 새로 배치되었는데도 과거와 비교하여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과거 정부와 달리 한국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왜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가

무엇인지, 전 정부가 잘못되었다면 현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누가 장관이고 그 장관이 무엇을 하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새 정부에서 장관들이 앞장서서 할 일이 많은 터인데도 장관의 존재감이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을 향하여 한 이야기는 적지 않다. 사회통합에 힘쓰겠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걱정없이 하겠다.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하겠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학의 자

율화를 실시하겠다. 등등. 지난 1년 동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다.

그런데 정작 녹색성장을 하려면 그 일들이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어떤 계획이래 무슨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면 어느 부처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무슨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들은 어

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지금쯤은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텐데 아직도 국민들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가까워지는데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대통령이 답답해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어떤 때는 정권초의 ‘춧불시위’ 때문이라고 변명을 한다. 내년에도 춧불시위가 있으면 또 1년을 허송세월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변명으로 돌려달 내용도 아니다.

새로운 국가 과제를 일인하고 힘차게 추진하는 것을 내각이 주도할 것인가 청와대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

서도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확인된 것은 내각이 이를 주도할 능력도 의사도 별로 없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청와대가 큰 그림들을 그리고 일의 추진계획과 점검을 하면서 이끌고 갈 수밖에 없으며, 그에 필요한 조직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면 청와대가 이런 일을 하면서 욕을 얻어 먹는 것은 각오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욕을 얻어 먹기를 두려워하여 아직까지 내각에 떠맡긴다면 일은 더더욱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어떤 유력인사는 ‘대통령은 왜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가’라고 직설을 던지기도 했다. 대통령 개인보다도 청와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직책이다. 귀담아 들을 말이다.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6개월 내에 개혁정책을 제시하고 1년안에 일단락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놓쳤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리 시간이 없다. 새해에는 청와대와 정부를 전면 개편하고 한 국가 나아가야 할 정책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 새롭고 활기찬 정부의 운용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등장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국민은 여전히 푸르고 싱싱한 정부를 보고 싶어 한다. (서울대 법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새해 최대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맞은 광주·전남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다. 지역민들은 광주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기업투자 유치’와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이다. 글로벌 경제 한파에 거의 맨몸으로 노출된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을 두라는 주문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수출과 내수가 줄고, 원자재가와 환율이 동반상승해 정부나 기업, 가계 모두 벼랑에 내몰렸다. 올해는 1·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도 모를 위기라고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지역민들도 64.9%가 지역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체감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광양제철,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 지역경제의 주축들은 지

난 연말부터 감산경영을 해왔다. 광주·전남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고, 자금 조달이 막혀서 문을 닫고, 정든 일터로 다시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IT산업 육성에서 그 해법을 찾자.

노사는 임금 총액은 줄이되 일자리는 유지하거나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도 일자리 유지와 만들기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좋겠다. 특히 9명 가운데 1명 풀린 청년 실업자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의지가 관건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하자. 힘들어도 일자리를 만들어 인재를 키워야 위기 이후에 도약할 수 있다.

국민에게 희망 주는 국회로 거듭나라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는 올해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 호(號)가 침몰하느냐 순항하느냐를 관가름하는 시점에 오르고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달라진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예가 있다.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현재 국민은 물론 후손들의 운명까지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국민은 눈앞의 경제 위기보다 정치 걱정엔 연발연시 며칠 밤을 뜯는 눈으로 보내고 있다.

여당이 집권세력답지 못한 것이 문제다. 시대 흐름과 국제정세를 꿰뚫고 국가를 선도하는 정치적 비전은 없고, 사회적 인연과 계파를 뛰어넘는 선진적인 정치문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강자의 포용이나 소수를 위한 배려도 찾기 힘들다. 독선과 아집으로 뿔뿔 뿔

린 밀어붙이기만 있을 뿐이다.

아당도 국민이 원하는 바를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10년 집권의 경험이다 어디로 갔는지 의심스럽다. 한 해 새천년을 선도하겠다는 미래 비전은 간데없고, 극한 투쟁과 리더십 부재만 남아있다. 텃밭인 광주·전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당리당략적 사고보다는 국가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관용성을 회복해야 한다.

올해는 다행히 큰 선거가 없다.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이나를 놓고 격의 없는 대화와 타협을 하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니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하는 일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

국회는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아닌 국민의 국회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라.

無 等 鼓

새해가 시작됐다. 소의 해인 을해는 천간지지(天干地支)로 기축(己丑)년이다. 음력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설인 20일부터 기축년이 시작되지만, 이제는 양력 1월 1일부터 천간을 적용하는 것이 통례가 됐다.

소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동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경사회에서 소는 매우 유익한 존재였다. 농사철 아무런 힘도 아끼지 않고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기면 가쁜 숨을 내쉬며 묵묵히 논밭을 갈아 풍년을 일궈다. 그래서 소는 근면의 대명사다. 개발독재 시대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이 심벌로 황소를 정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어쩌다 큰 자치라도 벌어지면 소는 주인에게 마지막으 슬픈 눈망울을 보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 했다. 농가의 재산목록 1호인 소는 때론 주인집 아들의 대학 등록금 밀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소가 순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소를 잘못 다루다간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소년시절 시골에서 화난 수소

에 발혀 치어를 너털 개나 잃은 이웃집 삼촌을 본 적이 있다. 소도 그만큼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또 소는 너무 고집스럽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황소고집’이라는 말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거나, 주변 상황과 동떨어져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를 지칭한다. 따라서 근면하고 성실한 장점에도 너무 막혀있거나 주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소 같은 사람’들로 불리는 이들은 현대적으로 생활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말로 ‘호시우보(虎視牛步)’가 적격이다. 즉, 호랑이 같이 날쌔고 선견지명이 있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명석하게 대처하되 일은 소처럼 진지하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자는 말이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모든 게 낙관할 수만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호시우보의 자세로, 용기와 지혜를 갖고 묵묵하게 헤쳐나간다면 편안해질 날도 멀지 않았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호시우보(虎視牛步)



기 고

홍 석 태



지난 달 29일 나주 영산대학교 부근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정중환 국토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강 생태하천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현장에 함께 한 필자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다만 이 사업을 전남도에서는 수질 개선과 치수 대책에 중점을 둔 영산강 뱃길 복원을 핵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업구상을 ‘영산강프로젝트’로 부르고,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 붙여 추진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정부와 전남도에서 영산강을 두고 별개의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됐다

영산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치수 대책과 수질정화 사업 등 영산강과 직결된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국가가 앞장서 조속히 추진해줄 건의했고, 마침내 정부에서는 녹색 뉴딜 정책의 차원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추진을 계기로 영산강 문화권의 부활을 위한 ‘동력찾기’에 나설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영산강 뱃길복원은 이명박 정부의 ‘오하론’이 나오기 이전 박준영 지사가 민선4기 선거공약으로 먼저 내놓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 사업의 순수성을 이해할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지사는 “과거 특산물을 싣고 영산강을 오르내리던 화포돛배 수준의 뱃길복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영산강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이는 국가사업의 전제하에 낙후된 영산강 주변 8개 시군의 번영을 위해 영산강 뱃길복원을 포함하여 영산강 주변지

역을 친환경·녹색 산업의 메카로 키워나 가겠다는 전남도 의지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강변도로,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단, 국제농산물 유통센터, 명품 관광지, 컨벤션센터 등의 구상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뜻을 올리는 것을 계기로 영산강프로젝트 사업도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정부에서 내년도 영산강 살리기 예산으로 2천435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치수관련 사업비는 909억원 이 많은데 공급, 영산강 고대문화권 사업 등에 1천526억원이 투입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가 구상한 영산강프로젝트 사업도 병행추진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영산강 사

업에 1조6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산강 살리기는 영산강의 풍요로운 힘을 되살리는 출발점이다. 이제 영산강 살리기의 첫 삽을 뜬 만큼 영산강이 제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시점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추진을 계기로 영산강 문화권의 부활을 위한 ‘동력찾기’에 나설 기반을 갖추게 됐다.

영산강이 생태를 회복하도록 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영산강 프로젝트의 기본정신이다. 즉 강을 살리고 연후에 사람이 더불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우리의 후대에게 맑은 강, 풍요로운 땅을 물려준다는 심정으로 영산강 살리기, 나아가 영산강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항욱·광주시 남구 빌딩2동

손님이 손가락으로 쿡쿡... 제과점 빵 위생관리 엉망

제과점의 위생 관리가 엉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먼지를 떨구게 되는데 매장에는 비닐 포장이나 없는 빵들이 전시돼 있다. 갖 구운 빵을 식혀놓는 의도가 있다. 이런 빵들은 그냥 놔둬도 아니라 투명유리관이나 비닐 포장으로 덮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는 어린 아이가 빵을 손으로 찢어보며 “이 빵 따뜻해요?”, “이거 구운지 얼마나 됐어요?” 하면서 이것저것을 건드리며 다녔다. 다른 사람들이 사갈 수도 있는

빵들을 그냥 맨손으로 쿡쿡 찢어대는 것이다. 제과점 주인도 난감했겠지만 너무나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먹는 음식의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식을 파는 사람도 물론이려니와 그것을 사는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과점들은 빵들을 그냥 노출해 팔게 아니라 모두 투명유리관에 넣고 관리했으면 한다.

▲이항욱·광주시 남구 빌딩2동

의료 칼럼

임 경 준



마취통증의학과 통증클리닉에서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요즘 흔히 시술하는 것이 신경주사 치료다. 그런데 이 신경주사 치료 또는 신경블록(차단술) 치료에 관해 궁금해하는 환자들 많이 있다. 다음은 필자가 환자들로부터 주로 질문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시술이 절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듯이 허리 통증에서 신경블록 치료의 효과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그렇지만 통증의 원인이 해당 신경에 있고, 몸이 약물에 적절히 반응한다면 치료에 대한 성공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통증의 원인이 해당 신경에 있지 않거나, 원하는 신경 부위에 약물

이 있다. 치료 효과는 완치된 경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무리한 일과 나쁜 자세를 피하고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다시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나쁜 습관이 지속된다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고 단지 증상만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환자도 상당수는 MRI 검사에서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꼭 허리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허리 디스크가 주위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 내서 통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만 우리 몸에서 제

허리 통증과 신경치료

이 정확히 퍼지지 않는다면 치료에 실패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통증 부위에 정확히 약물이 도달해야 신경블록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말이다. 치료에 필요한 시술의 횟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면 환자의 건강 상태, 통증을 앓은 기간과 통증의 정도, 약물에 대한 몸의 반응 등이다. 치료 효과는 해당 신경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신경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나 급성 통증은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대부분 4~6회의 치료를 필요로 하며, 잘 낫지 않는 만성 통증의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치료는 우리 몸이 약물에 반응해서 낫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주 1회 치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3~4일 간격으로 1주에 두 차례 정도 치료하기도 한다. 환자의 사정상 자주 치료받기 곤란한 경우에도 최소한 2주에 한번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신경 치료의 효과를 유지할 수

거한다. 통증이 없어지는 동시에 병이 치료되는 것이다. 즉 통증이 없다면 디스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리 통증이라는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치료 방법이 되는 것이다.

물리치료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의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꼼짝달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라면 우선 먼저 신경블록 주사치료를 시작해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라면 2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가볍게 물리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진 뒤에는 허리 근육을 서서히 움직여서 근육의 운동성을 되돌려 주어야 허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운동은 하지 않고 너무 장기간 물리치료에만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근육 강화 운동이 꼭 필요하다.

▲조선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고등학생들 벼락이 '도박 당구'... 주인은 모른체

며칠 전 친구들과 당구장에 갔다.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며 당구를 치고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담배만 피우는 게 아니라 당구를 치며 돈이 오갔다. 역수는 많지 않았지만 고등학생들이 용돈을 털어 일종의 '도박 당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액수가 적어 본인들이야 '내기 당구'라고 구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현금이 오가며 승부를 겨루는 게임은 내기라기보다는 노름에 가까운 것 아닌가. 하물며 고등학

생들이 바닥에 침을 빨고 험한 욕설까지 주고 받으며 '도박당구'를 하는 것을 보니 씁쓸했다.

당구는 PC방 게임이든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며 쉬라고 만들어진 공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처럼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데도 당구장 주인은 모른 채하고 있었다. 내 동생과 자녀로 여기고 적절히 지도하며 영업을 했으면 한다.

▲이학삼·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7-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